

수능 앞두고 영어 절대평가 취지 '도마위'

학평·모평서 '불영어'...수시 최저 미충족 학생 속출 우려 도농 격차·사교육 부채질 우려...“수능서 난이도 조절돼야”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영어 과목에 대한 절대평가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치러진 학평(학평)과 모의평가(모평) 영어 과목이 잇따라 어렵게 출제되면서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생이 속출할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30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광주·전남교육청 등에 따르면 올해 학평과 모평에서 영어 1등급(90점 이상) 비율은 3~6%에 그쳤고, 9월 모평에서 1등급 비율은 지난해 수능 1등급 비율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했다.

이처럼 영어 1등급 비율이 낮아진 이유는 올해부터 수능 영어 출제 기조가 EBS 출제 문제를 간접 연계하기로 하면서 학평과 모평에서 영어 지문이 수험생들에게 낯설게 느껴지는 등 난이도가 올라갔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일선 교육 현장에서는 이러한 '불영어'에 대해 절대평가 취지에 맞지 않고, 도농 간 영어 실력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또한 영어 사교육을 부채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시교육청 진학팀 정훈택 장학사는 “영어 1등급 비율이 4%대에 불과하

다는 것은 학습 부담을 줄이고 학교 수업만으로 1~2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절대평가를 도입한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영어 1~2등급 비율이 낮아지면 수시 최저학력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져 수시 인원이 정시로 이월되는 현상도 벌어지고, 공교육만으로는 영어 성적을 끌어올릴 수 없다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농촌학교가 많은 전남도교육청의 경우 영어 1등급 비율이 전국 평균보다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전남도교육청 진로진학팀 양승재 장학사는 “다른 과목보다 영어 실력의 경우 조기교육 등 투자와 연관 짓는 분석들이 있는데, 이처럼 영어 1등급 비율이 낮아지면 도농 간 학력 격차가 더 커진다”며 “교육부와 평가원에 난이

도 조절 등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능에서 영어 난이도 조절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 교육청 정훈택 장학사는 “지난해 수능 영어는 너무 쉬워 1등급 비율이 10%를 넘었다”며 “통상 영어 1등급 비율이 7~8%가 적절한 수준인 만큼 올해 수능에서는 영어 과목의 난도를 조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평가원 대학수학능력시험본부 측은 “9월 모평에서 상위 등급을 구분하는 문항 중 일부가 6월 모평과 비교해 좀 더 어려워 1등급 비율이 감소했다”면서 “6월과 9월 모평 성적을 상세히 분석해 11월 치러지는 수능에서는 상위권 변별 문항의 난도가 적절하게 출제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동수기자



가을에 핀 벚꽃 완연한 가을 날씨를 보인 30일 광주 서구 풍암동의 한 동산 산책로에 벚꽃이 만개해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봄과 가을에 두 번 꽃망울을 터트린다 해서 '춘추화(春秋花)'라 불리는 이 희귀 벚나무는 또다시 10월에 꽃이 핀다고 하여 우리말로 '시월벚나무'라고도 불린다. /김영리기자

“도박문제 인식 개선”...청·청 페스티벌 개최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 오늘부터 양일간 생중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광주전남센터는 10월 1~2일 양일간 시민들을 대상으로 온라인 '청소년·청년을 위한 이야기'가 있는 곳, '청청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청 페스티벌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친 청소년·청년의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전남센터,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동행복권, 광주청년센터, 광주청년드림은행, 광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광주스마트쉼센터, 광주동구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마인드링크 등 지역 내 유관기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1일에는 청년 도박문제 예방을 위한 행복한 동행의 주제로 불법도박에 대한 심각성을 전달하고 도박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참여기관 대표들의 도박문제 예방 연대 선언식이 행사의 백미를 장식할 예정이다.

/김동수기자

둘째 날인 2일에는 우리만의 공간, 청소년 아지트의 주제로 오후 2시부터 지역 내 유관기관들과 5·18 민주광장에서 정신건강 인식증진을 위해 다양한 체험 활동 및 선별검사를 할 수 있는 연합캠페인이 진행될 예정이다.

임남열 광주전남센터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청청페스티벌이 도박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동수기자

국립공원, '쓰담산행' 참여자 모집

국립공원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코로나블루 극복과 국립공원 내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쓰담산행'의 2차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2차 '쓰담산행'은 오는 10월3일까지 참여자를 모집하고, 같은달 7일부터 24일까지 운영될 예정이다.

국립공원 누리집 또는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플랫폼을 통해 선착순 100명의 신청자를 접수한다.

'쓰담산행'에 필요한 활동 키트를 우편으로 수령, 무등산에서 비대면 봉사활동에 참여하면 된다.

/최명진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7 해질 18:17
달출 00:30 달짐 15:29

생활정보지수

- 나들이 70
- 빨래 60
- 세차 50
- 운동 90

지역	강수량(%)	지역	만조	간조
광주	0-0	목포	08:51	04:07
목포	0-0		22:11	15:00
순천	0-0		05:27	00:15
여수	0-0	여수	18:07	11:07

서해 남부 (풍향/파고)		남해 서부 (풍향/파고)	
오전	앞바다 북-북동/0.5-1.0m 면바다 북-북동/0.5-1.5m	오전	앞바다 북-북동/0.5-1.0m 면바다 북-북동/1.0-2.0m
오후	앞바다 북서-북/0.5-0.5m 면바다 북서-북/0.5-1.5m	오후	앞바다 북서-북/0.5-1.0m 면바다 북서-북/0.5-1.5m

주간날씨

기간	전라(광주)	서울경(서울)	강원영동(강릉)	충청(대전)	경상(대구)	제주(제주)
10월 2/토	☁ (17/28)	☁ (18/26)	☁ (18/26)	☁ (17/27)	☁ (16/28)	☁ (21/27)
3/일	☁ (18/28)	☁ (18/27)	☁ (19/29)	☁ (17/28)	☁ (17/28)	☁ (20/29)
4/월	☁ (20/28)	☁ (20/26)	☁ (21/27)	☁ (19/27)	☁ (18/27)	☁ (22/29)

▶ 날씨안내 : 국민안전처

도·권익위·전남경찰, 도로 수목 정비 협업

전남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전남경찰청과 협력해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도로 주변 수목 정비사업'을 추진한다. 30일 무안 남약중 앞에서 첫 시연작업을 펼쳤다.

여름철 수목이 우거지거나 가로수가 성장해 일부 표지판이 가려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표지판과 가로수 등 소관 주체가 달라 관리에 혼선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권익위·전남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협력해 어린이보호구역, 진입금지, 일방통행 등 중요 안전표지판을 가리는 수목을 이식하거나 가지치기를 하기로 의견을 모아 9월부터 가로수 일제조사를 시작,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사업을 총괄·모니터링한다. 전남경찰청은 사고다발 지점, 어린이·노인보호구역 등을 중심으로 제한속도, 통행금지(진입, 좌·우회전), 주차금지 표지 등을 가리는 수목을 조사한다. 가로수 이식 및 가지치기 등 정비는 전남도와 22개 시·군에서 한다.

30일 남약중학교 정문 앞에서 문금주 전남도 행정부지사, 이정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규 전남경찰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보호구역 내 속도제한표지판을 가리는 수목 정비 시연을 통해 협업사업의 시작을 알렸다.

/김재정기자

동강대, 재학생들 취업 경쟁력 강화 '박차'

동강대가 재학생들의 취업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

취창업지원센터는 재학생 200여 명을 대상으로 TOEIC·OPIC 어학자격증, CS 리더스 관리자 양성과정, 병원코디네이터 양성과정, 국가공인 전산 자격증(E-T EST), 간호사 면허 취득, 산업안전 전문인력 양성과정(산업안전산업기사) 등 7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김동수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전통시장이 살아야 지역경제가 일어납니다”

서민들의 삶의 애환이 깃든 '전통시장'이 정기화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양하고 편리한 유통시설이 들어서면서 '전통시장'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은 여전히 지역경제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민들에게는 다양한 상품을 싸게 살 수 있는 현장이면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공간입니다. 각 자치단체에서는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광주매일신문은 시·도민들의 지혜를 모아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연중 캠페인을 펼치겠습니다.

천혜의 아름다운 광경과 건강한 먹거리가 풍부한

고흥전통시장

● 장이 서는 날 ●

4, 9일로 끝나는 날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고흥군**
GOHEUNG COUNTY

문의 : 062)650-2099